

# 開城簿記의 樣式과 記帳法에 關하여

李 常 薰

<目 次>	
I.	緒 論
II.	松都簿記法の 貸借觀念과 記帳用記號
III.	開城簿記의 分介法和 記號들
IV.	計定科目設定에 對해서
V.	帳簿組織과 그 種類
VI.	記帳方法의 例
VII.	決算에 關해서
VIII.	結 論

## I. 緒 論

開城簿記는 松都四介治簿法이라고도 하는바 松都는 開城의 別稱이고 四介는 貸借를 表示하는 「入」, 「還給」, 「捧次」, 「還上」의 4記號를 가르키며 或은 外上長冊, 他給長冊, 日記, 銘心錄의 四計文書를 指稱하며 또는 4計定인 捧次秩, 給次秩, 利益秩, 消費秩을 表現하는 것이라고 開城商人들 自身도 不明한 對答을 하는 形便이라 定說아 없다.

그러나 開城簿記法은 그 貸借觀念이나 帳簿組織이나 記帳方法이나 決算節次等に 있어서 複式簿記法과 恰似한 것이다.

勿論 複式簿記에 比較해서 指摘될 短點이 많으나 우리나라 他地方의 記帳法 보다는 越等 合理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開城簿記法이 언제부터 發生하였으며 누가 創案한 것인가 하는 問題가 當然히 提起될 것인데 이것에 對한 立證文獻은 없고 傳說로서는 高麗末期부터 있었다고 하며, 或은 數百年前 開城商人이 平安道로 부터 傳入한 것에 許多한 改善을 加해서 今日과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고도 하고 또는 天主教 傳來와 함께 宣教師들이 洋式簿記를 翻譯하여 이것을 開城商人에게 傳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治簿法이 高麗末期부터 開城에 있었다고 하면 複式簿記法의 起源地가 伊太利의 自由都市가 아니라 韓國의 開城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世界簿記史의 一大變動을 이르킬 問題가 될 것이다. 다만 立證의 資料가 不明한 것이

遺憾之事이다.

## Ⅱ. 松都簿記法の 貸借觀念과 記帳用記號

簿記法에 있어서 貸借觀念이란 가장 重要한 觀念인데 複式簿記法에서는 恒常 相對方에서 봐서 貸借을 稱하는 것인바 그 相對方이 사람임은 勿論 非人的物質이나 또는 損益 같은 事實에도 人格을 附與하여 사람과 같이 看做한다.

그런데 開城簿記에서도 이 貸借觀念은 똑 같으나 貸借의 文字를 쓰지 않고 「入」, 「還給」, 「捧次」, 「還上」의 4 記號를 가지고 貸借關係를 表示하고 있다. 卽 「入」이란 有價物의 喪失, 債務의 發生, 利益의 發生 등을 表示하고, 「還給」은 借入金의 返濟, 外上買入金의 支給과 같은 債務의 消滅을 表現하고, 「捧次」는 有價物의 取得, 債權의 發生 또는 損失의 發生을 表示하고 「還上」은 貸金이나 外上賣出金의 回收等 債權의 消滅을 表現하는 記號이다.

以上 4 記號를 前記와 같이 四計라고 稱하고 이 四計에 依해서 去來의 8 要素가 全部 表示된다.

이것을 複式簿記와 對照해 보면 다음과 같다.

(借 邊)	(貸 邊)
有價物의 取得 (捧次)——(入)	有價物의 喪失
債權의 發生 (捧次)——(還上)	債權消滅
債務의 消滅 (還給)——(入)	債務의 發生
損失의 發生 (捧次)——(入)	利益의 發生

複式簿記에서는 모든 去來를 貸邊(creditor), 借邊(debtor)에 依해서 交換되는 物件을 人格化해 보고 이 物件과 營業主와의 關係를 貸借關係로 假裝記入하되 1 去來를 貸借로 分立시켜 記入하므로써 記帳의 正確性を 保存檢證케 하거니와 開城簿記에 있어서 上記 4 記號로 貸借關係를 表示하는 點은 마찬가지로 1 去來를 二重分立記入치 않으므로 正確性檢算의 方途를 缺乏케 하는 點은 短點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 Ⅲ. 開城簿記의 分介法和 記號들

分介라는 것은 去來가 發生할 때에 借邊 및 貸邊을 區別하여 適當한 計定科目을 붙여서 元帳의 關係計座에 記入할 準備를 하는 것인데 開城簿記의 分介法은 그 帳簿의 性質上 複式簿記의 分介 같이 貸借兩方으로 分立記入하지 않고 모든 去來를 그 性質에 따라 適當한 計定科目을 붙여서 記入하되 그 밑에 前記 4 記號 中의 어느것을 記入하여 그 關係를 表示하고 이것에 따라 長冊(元帳)記入을 準備할 뿐이다. 그리고 現金收支를 明白히 하기 爲해서는 各金額末端에 「上」 「下」 「┌」의 3 記號를 使用한다. 卽 現金受入의 경우에

는 「上」字를 添記하고 支給한 경우에는 「下」字를 附記하고 現金受支에 關係없는 損去來의 경우에는 「ㄴ」票를 붙여서 現金去來와 不然한 去來를 區別한다.

그외에도 開城簿記에는 다음과 같은 記號的文字를 많이 使用한다.

(가) 入과去 : 이 두字는 物品의 出納을 標準으로 하는 것으로서 物品을 受入할 때에는 그 行의 初頭에 「入」字를 記入하고 이와 反對로 拂出할 때에는 「去」字를 記入한다.

(나) 過入과 過去 : 「過入」은 本額以上の 收益이 있을 경우에 「過去」는 이와 正反對의 경우에 記入한다.

(다) 秩 : 「秩」이란 計定이란 意味로서 例컨대 物品秩이라고 抽象的으로도 使用하고 紅蔘秩, 石油秩, 魚驗秩 等과 같이 具體的으로도 쓴다.

(라) 文 : 「文」字는 「錢」字의 代用字.

(마) 餘 : 「餘」字는 「殘」의 意義로 쓴다.

(바) 直放과 買得 : 現金 卽 直錢으로 賣渡하는 것은 「直放」이라고 記入하고, 現金으로 買收할 때에는 「買得」이라고 表示한다.

(사) 標算 : 「標算」은 一名 「胡算」이라고도 稱하는바  $\begin{matrix} | & || & ||| & 2 & 6 & \frac{1}{6} & \frac{1}{7} & \frac{1}{8} & \frac{1}{9} \end{matrix}$  와 같이 珠算을 象形한 것으로서 物價를 表示할 때에 使用한다.

(아) 時在 : 이것은 殘額의 意義이다.

(자) 列旗法(中) : 이것은 旗를 세운 것 같이 보인다 해서 「列旗法」이라고 하는데 日記의 記入이 捧次, 還次 어느便에도 그 關係가 消滅된 때에는 반드시 이 記號를 行頭에 記入한다.

(차) 打點法 : 「打點法」은 日記, 長冊 雙方에 使用할 수 있는바 日記의 打點은 日記의 記事가 長冊(元帳)에 轉記되었을 때에 그 行頭에 加하고 長冊의 打點은 日記에서 轉記된 後 日記와 對照한 때에 本行金額右側에 朱筆로써 加한다. 말하자면 複式簿記에서 쓰는 check mark(√)와 같은 것이다.

(카) 行劃 : 이것은 「爻周」라고도 稱하는바 他給外上 어느 長冊에도 그 捧給의 關係가 消滅된 때에 行頭에 記入된다. 이것은 「△」로 表示한다.

(타) 又 : 이 字는 人名計定이나 物品計定을 莫論하고 그 計定科目次行에 쓰는 字로서 萬若 人名次行에 「又」字가 記入되면 前行의 人名이 되고 物品의 次行에 記入되는 경우에는 前行의 物品이 된다. 記錄簡素化를 爲한 代用의 文字다.

(파) 合과 實 : 「合」이란 借邊 또는 貸邊의 어느便이든지 한便을 總計한 것이고 「實」은 捧給을 相計(相殺)한 殘額을 指稱한다.

이제 다음 去來를 假定하고 分介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가) 金一煥으로부터 金壹千원의 貸付를 받다. 期限 本月末日 利率 年 壹割.

(나) 李宗林에게 外上借金 五百원을 現金으로 支給하다.

(다) 朴大宗에게 다음과 같이 賣渡하고 代金中 貳百원은 本月末 支拂의 約束어음 第1號로, 殘額은 現金으로 받다. 松票石油 五拾箱 金五圓六拾錢式 此代金 貳百八拾圓整

(라) 開城社에서 다음과 같이 外上買入하다.

洋絲 拾六手, 五捆 壹捆 參百八拾圓式 此 代金 壹千九百圓整

(分介記入)

(가) 金一煥入 債入 本月末限	₩ 1,000. —	上
(나) 李宗林還給 ×月×日 外上借金	₩ 500. —	下
(다) 松票石油入 50箱 朴大宗內	₩ 80. —	上
又 入 同 內	₩ 200. —	} 約束魚臉 第一號本月末限
朴大宗 捧次 松票石油	₩ 200. —	
(라) 開城社入 洋絲 16手 5捆	₩ 1,900. —	}
又 捧次 同	₩ 1,900. —	

上記去來를 複式簿記法에 依해서 分介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借 邊)		(貸 邊)	
(가) 現金	₩ 1,000. —	借用金	₩ 1,000. —
(나) 李宗林	₩ 500. —	現金	₩ 500. —
(다) 받을於音	₩ 200. —	商品	₩ 280. —
現金	₩ 80. —		
(라) 商品	₩ 1,900. —	開城社	₩ 1,900. —

上記兩分介를 對照하면 各其 計定科目設定에 있어서 相異한 바가 있지만 貸借觀念에 있어서는 何等 差異가 없다.

#### IV. 計定科目設定에 對하여

計定科目이란 去來를 分介記入할 때에 그 借邊, 貸邊인 計算要目에 붙인 名稱으로서 이것의 設定은 營業의 性質, 種類, 經營의 規模, 去來量의 多少에 따라서 相違할 것이나 會計擔當者에 依해서도 差異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科目設定이 重要한 것은 이것을 너무 細分하면 記帳上 混亂을 招來할 것이고 너무 簡略히 하면 財産變化 增減을 明確히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開城簿記의 計定科目은 去來量이 今日과 같이 많지 않은 까닭이었는데 極少數로 處理를 하고 있다. 特히 人名計定을 보면 複式簿記에서는 外上賣買에 對한 것 만 人名으

그로 다루는 것이 一般의인데, 開城簿記에서는 其외의 預置金, 借入金, 어음의 元利金까지도 人名計定으로 處理하는 習慣이었다. 이런 까닭에 財政狀態를 一目瞭然하게 할 수 는 없는 缺點을 內包하고 있다.

이제 開城簿記에서 다루는 一般的 計定科目을 보면 다음 程度에 지나지 않는다.

(1) 資産, 負債에 關한 計定:—

商品秩, 人名秩, 어음秩, 土地家屋秩, 什物秩 等이고

(2) 損益에 關한 計定:—

邊利秩, 口錢秩, 公用秩, 浮費秩 等.

다음에 이것들의 內容을 說明하겠다.

(가) 商品秩, 複式簿記에서는 商品計定이란 그 種類를 不問하고 總括적으로 處理하는 計定이는 補助簿인 商品賣買帳에 記入할 때에 비로소 商品別로 詳記하는 것인데 開城簿記에서는 最初부터 商品別로 記入한다. 例컨대 綿布秩, 人蔘秩, 麥粉秩 等等으로 表示할 뿐만 아니라 外上賣買인 경우에는 그 延滯利子까지도 商品計定에 包含시켜서 處理한다. 그러나 小賣商에 있어서 種類가 許多할 때에는 買入分을 買得秩에 統合記入하고 賣上時에는 直放秩에 各各 總括的科目으로 處理하는데 이것은 複式簿記의 買入計定과 販賣計定을 使用하는 것과 同一하다,

(나) 人名秩. 이 人名計定은 前述한 것과 같이 外上賣買는 勿論 一切의 對人債權債務를 그 種類나 性質을 不問하고 全部 人名計定으로 處理한다.

(다) 魚驗秩. 어음秩은 어음의 出入단을 處理하는 計定科目이다.

(라) 土地家屋秩. 이것은 土地와 家屋을 處理하는 것으로서 複式簿記와 다름이 없다.

(마) 什物秩. 이것은 營業用 各種의 器具를 處理하는 計定이다.

(바) 邊利秩. 邊利란 利子の 舊稱으로서 貸付, 借入에 수반하는 利子를 邊利秩에서 總括한다.

(사) 口錢秩. 口錢 또는 口文은 手數料의 舊稱으로서 이것의 收支를 處理하는 計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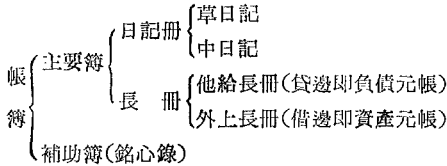
(아) 公用秩. 이것은 稅金, 料金, 費用, 紙筆墨等 廣範圍한 內容을 가진 總括計定이다.

(자) 浮費秩. 부비는 各種小額의 雜費를 指稱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의 雜費計定이 이것에 該當된다.

여기서 奇異한 點은 現金秩이 없는 것이다. 現金에 對해서는 分介形式으로 收入時에는 「上」, 支給時에는 「下」라고 添記하므로 다시 秩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決算時에는 現金 殘額을 在物中에서도 時在金 幾何로 表示할 뿐이다.

### V. 帳簿組織과 그 種類

開城簿記는 複式簿記와 마찬가지로 主要簿와 補助簿 두가지를 使用하며 이것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開城簿記에 있어서는 帳簿는 朝鮮白紙로 만들며 크기는 商店에 따라서 多少 다르나 大概 日記冊과 銘心錄은 좀 작고 長冊은 좀 크다. 前者는 길이 24 cm 가량 넓이 20 cm 가량 되고 後者는 길이 36 cm 넓이 20 cm 가량 되게 잘라서 黃褐色紙로 表紙를 한 것이다. 冊부피도 一定한 것은 아니지만 大概 4·50 枚정도로 되어 있다.

이제 帳冊內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가) 日記冊. 日記冊은 前記와 같이 草日記와 中日記로 區分할 수 있으나 中日記는 重要的 分介記入을 하는 役割을 하므로 日記와 分介를 各冊에 記入하는 것은 敏活을 害친다. 이하하여 尙日은 草日記를 省略하고 中日記만 記入한다. 或 草日記까지 쓴다면 이 日記冊은 補助簿로나 意義를 갖게 된다. 複式簿記에서 日記帳과 分介帳을 具備한 時代가 있었으나 이것을 合쳐서 分介日記帳으로 統合한 것인데 開城簿記에서도 同一한 事情으로 日記帳이 하나로 統一된 것이다. 그리하여 日記帳은 各帳冊의 基礎가 되는 點 複式簿記의 分介日記帳과 같고, 여기에는 日附順으로 每日 發生하는 去來를 分介記入하며 去來要領도 附記하여 關係되는 長冊에 轉記한다. 그러나 開城簿記의 日記帳은 現金出納을 爲主로 하는 分介日記帳의 性質을 띠고 있는 것이다.

(나) 長冊. 長冊은 複式簿記의 總計定元帳에 相當하여 財産狀態와 事業의 成果를 明確히 하기 爲해서 設置한다. 長冊에는 外上長冊과 他給長冊이 있음은 前示한 바이지만 前者는 日記帳에서 分介記入된 計定科目中에서 資產 및 損失에 屬하는 計定 卽 「捧次」 및 「還上」의 記號를 가진 것을 一種마다 計座를 設置하여 各各 日記帳으로 부터 轉記하고, 資產과 損失額을 表示하는 帳簿이다. 複式簿記로만 하면 總計定元帳의 借邊에 該當하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後者 卽 他給長冊은 負債 및 利益에 屬하는 計定, 換言하면 「入」 및 「還給」의 記號가 있는 計定을 日記帳에서 부터 轉記하여 負債와 利益額을 表現하는 計定이다. 이것은 複式簿記의 總計定元帳의 貸邊에 該當하는 것이다.

러나 外上 및 他給長冊을 分割치 않고 兩者를 一冊에 묶어서 使用하는 商人도 적지 않은 實情이다.

(다) 補助簿. 銘心錄이 補助簿인 것은 앞에 指摘했으며 草日記도 補助簿의 性質을 띠고 했지만 어음記入帳이나 委託品帳 같은 것도 이것에 屬한다. 이것의 特徵은 日順에 依해서 去來의 金額, 要領을 記入하여 一種의 參考 및 備考帳의 役割을 시키자는 것이다.

### VI. 記帳方法의 例

다음에 開城簿記法에서 使用하는 各 長冊의 記帳方法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營 業 日 誌)

- 4/1 營業主 金昌用은 現金 ₩500,000.一을 出資하여 雜貨商을 經營함.
- 4/2 韓一銀行과 當座預金去來를 開始하고 現金 ₩450,000.一을 預金하다.
- 4/2 營業用諸器具를 買入하고 此代金 ₩20,000.一을 現金으로 支給하다.
- 4/5 林大圭로 부터 다음 商品을 買收하고 代金を 韓一銀行 第1號로 支給함.  
松票石油 100箱, 1箱 ₩580.00式 此代金 ₩58,000.一
- 4/5 金亨東에서 金 ₩100,000.一을 借入하고 內 ₩20,000.一은 第一銀行에 當座預置함.
- 4/6 金大光에게 다음과 같이 賣渡하고 代金を 現金으로 받음.  
松票石油 30箱, 1箱 ₩600.00式 此代金 ₩18,000.一
- 4/7 朴根洙에서 다음商品을 買入하고 代金中 ₩15,000.一은 現金으로 支拂하고 殘額은 外上으로 함.  
A票精糖 10俵, 1俵 ₩2,650.00式 此代金 ₩26,500.一
- 4/10 朴根洙의 外上借金에 對해서 同店發行 李圭大向當店支拂換어음 第10號의 顯示를 받고 이것을 擔當함. 此代金 ₩11,500.一 日附本日. 期日 4月30日.
- 4/15 崔台植에게 金 ₩800,000.一을 貸付함. 期日 5月5日, 日邊 3錢整
- 5/20 金亨東으로의 借入金期日當到 元利金 ₩100,000.一 整 第一銀行手票 第2號로 支給함.
- 4/30 朴根洙發行의 換어음 本日期日이므로 此金 ₩11,500.一 現金으로 支拂함.
- 4/30 本月分店用諸入費 現金으로 支拂함.
  - 1. 店員給料 金 ₩2,000.一
  - 1. 諸雜費 金 ₩1,000.一

#### 日記帳 19××年 第1冊

4/1 金昌用 入 資本金	₩ 500,000.一	上
4/2 第一銀行 捧次 當預開始	₩ 450,000.一	下
〃 什物秩 捧次 諸什器	₩ 20,000.一	下
4/5 松票石油 捧次 100箱 朴根洙給	₩ 58,000.一	}
第一銀行 還上 手票第1號發行	₩ 58,000.一	
〃 金亨東 入 本月20日限 借入 日邊 2錢5厘	₩ 80,000.一	
〃 又 入 同	₩ 20,000.一	}
〃 第一銀行 捧次 金亨東借入預金	₩ 20,000.一	

4/6	松票石油 入	30箱 金大光給	₩ 18,000.—	上
4/7	朴根洙 入	A票精糖 10俵	" 11,500.—	
"	A票精糖 捧次	10俵 朴根洙給	" 11,500.—	
"	又 捧次	同	" 15,000.—	下
4/10	魚驗秩 入	10月30日限 李圭大 向	" 11,500.—	
"	朴根洙 還給	上어음金	" 11,500.—	
4/15	崔台植 捧次	5月5日限 日邊 3錢	" 80,000.—	下
4/20	金亨東 還給	本日限債入	" 100,000.—	
"	第一銀行 還上	手票第2號發行	" 100,400.—	
"	邊利秩 捧次	金亨東債入邊利	" 400.—	
4/30	魚驗秩 還給	本日限 李圭大	" 11,500.—	下
"	公用秩 捧次	店資給料	" 2,000.—	下
"	浮費秩 捧次	諸費用	" 1,000.—	下
		時在金	" 18,500.—	

但 第1冊을 全部 使用하고 第2冊의 初行에 續記할 때에는 前冊 時在 移來金 18,500.— 이라고 記入함.

上記 日記冊에서 長冊에 轉記하면 다음과 같다.

◎外上長冊		19××年	第1冊
第一銀行	4/2	當座預金 ₩450,000.—	下內 4/5 手票第1號發行 ₩58,000.— 4/5 預金 ₩20,000.— 內 4/20 手票第2號發行 ₩100,400.—
什物秩	4/2	營業用諸器具 ₩20,000.—	下
松票石油	4/5	100箱 ₩58,000.—	
A票精糖	4/7	10俵 ₩26,500.—	
崔台植	4/15	債給 4/30 限 ₩80,000.—	
邊利秩	4/20	金亨東債入邊利 ₩400.—	
公用秩	4/30	店員給料 ₩2,000.—	
浮費秩	4/30	諸雜費 ₩1,000.—	
◎他給長冊		19××年	第1冊
金昌用	4/1	資本金 ₩500,000.—	上
金亨東	4/5	債入 4/20 限 ₩100,000.—	內 4/20 債入金 ₩100,000.—
松票石油	4/6	30箱 ₩18,000.—	上
朴根洙	4/7	A票精糖 ₩15,000.—	4/10 李圭大向 換어음 ₩11,500.—
어음秩	4/10	李圭大向 4/30 限 ₩11,500.—	內 4/30 李圭大向 ₩11,500.—

## VII. 決算에 關해서

### (가) 決算節次

開城簿記法에 있어서도 複式簿記와 같이 一定期末에 있어서의 資產, 負債의 現況을 밝히고 同時에 營業의 成績 卽 損益의 程度를 알기 爲해서 決算을 한다.



決算節次는 第1次로 所有物에 對해서 在物調査를 하고 第2次로 決算書를 作成하고 이에 依해서 日記冊으로 부터 各長冊에의 轉記가 正確한가를 檢査하며 損益을 算出하고 이리하여 正確性을 認定한 다음에는 長冊決算節次를 밋는다.

于先 外上長冊에 있어서의 商品, 不動産 等の 所有物의 總額과 他給長冊에 있어서의 同一計座의 總額과의 差額을 「入」 記號로써, 外上長冊에 있어서의 各損失計定의 總額을 「還上」記號로써, 他給長冊에 있어서의 各 利益計定의 總額을 「還給」 記號로써 在物調査한 所有物計定은 「捧次」 記號로써 純利益金은 「入」記號로써 各各 日記冊에 分介記入하고, 다시 그것으로 부터 各 長冊에 새로 計座를 設定하여 여기에 轉記한다. 이리하면 人名計定以外的 各計座는 그 殘額이 零이 된다.

그리고 人名計定 및 어음計定은 마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放置하여 漸次로 그 債權債務를 消滅시키게 된다.

上述한 것과 같이 開城簿記法에 있어서의 決算節次는 所謂 大陸式決算方法과 같이 分介帳을 經由하는 決算節次로서 各長冊에서 마감하지 않고 一ト 그 顛末을 日記帳에 分介記入한 後 다시 各長冊에 轉記해서 決算을 完了하는 것이다.

(나) 決算書

決算書는 決算期에 있어서의 資産 및 負債의 一致與否를 檢査하고 日記冊에서 長冊에의 轉記에 誤謬有無를 判定할 試算表이며 同時에 損益表 資産負債表 財産目錄을 兼備한 것이다.

이제 前例題를 가지고 決算書를 作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決 算 書

他給(他給長冊의 人名計定殘을 移記함)

金昌用 資本金 ₩500,000. —

計 ₩500,000. —

外上(外上長冊의 人名計定殘을 移記함)

第一銀行 當座預金 ₩311,600. —

崔台植 債給 ₩80,000. —

計 ₩391,600. —

在物(有價物의 在物調査額 및 現金在高)

什物秩 諸器具在物評價 ₩18,000. —

松票石油 70 箱 ₩40,950. —

A 票精糖 10 俵 ₩28,000. —

時在金 日記冊時在金 ₩18,500. —

計 ₩105,450. —

外上在物金		497.050-
損益計算		
松票石油利益金	₩950.-	
A票精糖 "	" 1,500.-	
		合計 ₩2,450.-
什物秩 損失金	" 2,000.-	
邊利秩 "	" 400.-	
公用秩 "	" 2,000.-	
浮費秩 "	" 1,000.-	
		合計 ₩5,400.-
損失金	2,950.-	

### VIII. 結 論

開城簿記는 그 原理에 있어서 洋式簿記 卽 複式簿記와 極히 類似하지만 計定科目의 設定, 帳簿組織, 記帳의 方法 等에 있어서 許多한 不備點이 있고 特히 決算節次는 複雜하여 複式簿記에 比하면, 遜色이 적지 않다.

그러나 萬若 古人이 主張하듯이 이 簿記가 高麗時代末葉부터 있었다면 洋式簿記發明以前에 屬하는 約 600年前事이므로 도리어 그 妙技를 찬양해야 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다.

이 簿記가 오늘날 까지도 複式簿記에 遜色이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이것을 普及使用치 않으므로 發展을 못 본 것이거나 洋式簿記의 輸入으로 그 普及發展이 妨害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開城簿記가 複式簿記를 使用하는 것보다 韓國人에게 便利한 點이 있으면 그 缺點을 없애도록 研究해야 할 것으로 思惟할 뿐이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教授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

註：韓國簿記는 橫書로 쓰지 않으며 金額도 「아라비아」 數字로 쓰지 않고, “壹千五百圓也”라는 式으로 縱書로 쓰는 것이 原則이다. 그런데 이 開城簿記의 原稿는 論文集體裁가 橫書로 쓰게 마련인데다가 數字를 漢字로 쓰면 도리히 不便하고 선뜻 알아 보기 쉽지 않으므로 「아라비아」 數字로 橫書를 했다. 이點 讀者의 諒解를 求하는 바이다.

<Summary>

**An Introduction  
to  
Kaisung (or Songdo) Book-keeping**

*Sang-Hoon Lee\**

**I . On the Origin of Songdo Book-keeping.**

Korea has a sort of native book-keeping named Songdo or Kaisung Sagai (four parts) Chibu Pub (booking method). "Songdo" or "Kaisung" was the capital city of Korea during Koryo Dynasty, and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they had already had a superior book-keeping method even earlier than the year of 1496 when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was first introduced by Lucas Pacioli, though unfortunately no one could testify it quoting definite evidences.

As for the origin of Songdo Book-keeping there have been many legends: some said it came from Pyungan-do, the north-western province of Korea, where merchants from Kaisung City used to travel around very frequently, but others insisted it was translated from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brought into Korea by foreign missionaries in those days. However, we have not been able to furnish any exact documents to prove such assertions.

**II . On the Four Parts of Journalizing.**

The Kaisung Book-keeping has four parts to classify the debtor and creditor, that is to say, Ip(入), Pongcha(捧次), Whankeup(還給), and Whansang(還上), and with which they journalized as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Ip(入) means creditors, in the case of decrease of assets or appearance of liabilities or profit, while Pongcha(捧次) means debtors, in the case of gain of assets, appearance of credit and loss. On the other hand Whankeup(還給) shows the

---

\* Professor of Accounting,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Member of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cel of liabilities, and Whansang(還上) the cancel of credit.

### III. The Journalizing and Marks of the Songdo Book-keeping.

The Songdo Book-keeping has a journal booking in its own way, and many marks or letters carry special meanings respectively. In journalizing it uses Chil (秩), which is a/c, instead, for merchandise, i.e., "Goods A/C" it uses the concrete name of each merchandise; and for the cash it adds the letter "上" at the end of amounts when received, and the letter "下" in case paid. The mark "ㄣ" represents the transaction which has no connections with cash.

Along with these marks are used in Kaisung Book-keeping the following ones:

1. Ip(入) & Gir(去).....Ip(入) is used at the head of records as the sign of entered things, and Gir(去) as the sign of gone-out things.
2. Gwaip(過入) & Gwagir(過去).....the former represents the extra income, while the latter, the loss.
3. Moon(文).....this means money.
4. Yeu(餘).....this signifies balances.
5. Chikbahng(直放) & Maideuk(買得).....the former represents selling with cash, the latter buying with cash.
6. Pyosahn(標算) or Hosahn(胡算).....this means prices, and numbers are written as follows:

I			ㄨ	ㄨ	⊥	⊥	⊥	ㄣ
1	2	3	4	5	6	7	8	9

7. Shijai(時在).....this means present balance.
8. The mark(中), Yulkipub(列旗法).....this symbol looks like a standing flag and used in case of canceled things and no relations with the parties, for example, when one received something at a time and returned it at other time.
9. The mark(·), Tajumpub(打點法).....this signifies check marks in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and is similar to the decimal point in its form.

10. Woo(又)……this means “the same” or “as above”.

11. Hap(合) & Shil(實)……The former means total, and the latter, the balance.

#### **IV. On the Establishing Accounts.**

In Kaisung Book-Keeping, the establishing accounts differ greatly from those of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In the Kaisung Book-keeping, the accounts are so concrete that the contents could be very clearly understood, although it is unclear whether they deal interest or freight with the merchandise account. It is under suspicion, therefore, the expenses and the merchandise might be confounded with.

Kaisung Book-keeping could be classified as follows:

1. Accounts for profit and loss.
2. Accounts for assets and liabilities.

Accounts for assets and liabilities include those accounts for merchandises, personal bills and drafts, land and buildings, and official furnitures, etc.

Accounts for profit and loss contain interests, commissions, public expenses, and floating expenses which mean petty expenses.

#### **V. Book System and the Kind of Books.**

Just as the double entry book-keeping the Kaisung Book-keeping has the main and auxiliary books.

In the main book there are two kinds of books, called Ilkichak(日記冊) which means the daily book, and Changchaik(長冊) which means the ledger book.

The daily books are further divided into two kinds, i.e., Cho-il-kee(草日記) and Choong-il-kee(中日記). The former is a plain daily book while the latter, a journal daily book.

In Changchaik (ledger book), there are also two kinds: the one is Takeup-

Changchaik(他給長冊) which the ledger deals with liabilities, and the other Waisang Changchaik(外上長冊) the ledger deals with credits.

Besides there, are many kinds of auxiliary books in the Kaisung book-keeping, but as a whole they are called Myungsimrock(銘心錄).

The books were generally made of native Korean papers and yellow covers. The size was not standardized, but usually 24 cm×20 cm for daily books and auxiliary books, and 36 cm×27 cm for ledger books. In general these books contain 90 to 100 pages.

#### Ⅵ. An Exercise of Kaisung Book-keeping.